# 검찰, 고유정에 법정최고형 사형 구형

어제 제주지법서 11차 공판… 내달 10일 결심공판 검찰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계획적인 범죄 분명" 고유정 변호인측 재판 연기 요청… 선고 늦춰질듯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 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11차 공판에서 "극단 적 인명 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분명하다"며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 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 버지(전 남편)를, 아버지(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무참히 저질렀다"면서 "그럼 에도 피고인은 거짓과 변명으로 일 관했고, 유가족들은 아직도 찢어지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형사 적 비난 가능성을 일부라도 감경하 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 관념에 부 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재판부가 결 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전 남편 혈흔 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 된 것과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며 이 같은 증 거들이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 하고, 의붓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고유정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고 강조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끝내고 다음 재판 때 선고할 계획이 었지만, 변호인 측이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한 차례 기 일을 미루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대검찰청과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에 (전 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 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 지만 일부 문서가 도착하지 않아 피 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후 진술을 거부한 채 재 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런 요청을 수용하면서 고씨의 최후진술과 변호인 측 최후변 론을 듣는 결심공판은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선고는 다음달 중순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 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 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 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 ~6시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 붓아들(당시 5세)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 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린 뒤 뒤 통수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시민과의 소통으로 주민불편민원 해소"

# 유동배 서귀포경찰서장 20일 취임 기자간담서 밝혀

유동배 서귀포경찰서장은 20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 고 주민불편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서장은 이날 오전 취임 기자간 담회를 열고 "제2공항 등 지역 현안 에서 발생한 갈등에 있어 경찰은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며 "주민 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모든 주민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시민들과의 대 화를 통해 일을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도 시민들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 고 말했다.

유 서장은 더불어 서귀포지역 교 통사고 예방과 관련해 "서귀포지역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당수는 보 행자가 다치는 사고"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 전체적으로 안전 속도 5030 정책과 구간단속 확대 등 이 이뤄지고 있는데 서귀포경찰서도 이에 발맞춰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유동배 서귀포경찰서장이 20일 기자간담을 통 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위해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업하고 마 을노인회를 통한 교통사고예방 교육 과 홍보용품 전달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서장은 오는 4·15총선과 관련 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공정한 관리자 입장에 서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생각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 모텔에 불 지른 50대 입건

서귀포경찰서는 20일 자신이 머물고 있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 조물방화)로 A씨(50)를 입건해 조 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 시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모텔 2층 복도에 놓인 매트리스에 불 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모텔에는 10명의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고, 이 중 6명은 재빨리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그러나 B씨 (35) 등 4명은 연기를 흡입해 119구 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 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윤기자

#### 살인혐의 40대 검찰 송치

제주에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40 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49)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7분쯤 제주시 봉개동 한 주택에서 둔기로 B(50)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A씨를 상해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B씨를 둔 기로 수차례 때린 점 등 고의성이 있 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이상국기자

## 제2공항 예정지서 철새도래지 추가 발견

성산환경 지키는 사람들 조류생태환경 조사 결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서 철새도 래지가 추가로 발견됐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 회의와 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 귀포시 성산읍과 구좌읍 해안 일대

에서 '제1차 서산 바다 철새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대로 밝혀 내지 못한 제2공항 남쪽 활주로 인 근의 조류 서식환경과 조류 충돌 우 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주용기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기존 철새도래지로 알 고 설명했다.

려졌던 구좌읍 하도리·종달리 외에 도 성산읍 해안에서 천연기념물 지 정 조류를 포함한 멸종위기종 새들 이 다수 발견됐다. 발견된 조류만 30 종 이상, 개체수는 수천여마리를 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기 연구원은 "제2공항 부지에 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임에 도 굉장히 많은 조류가 발견되고 있 다"며 "높이 나는 조류의 경우 상공 1km 이상 날아오르기 때문에 비행기 이착륙 시 충돌의 위험이 존재한다" 김현석기자

# "강정천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지정해야"

#### 강정마을해군기지 반대주민회 20일 성명 통해 촉구하고 나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원앙 집단폐사 사건과 관련 강정마을 해 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상수원 보호구역인 강정천 일 대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 회는 "조류전문가인 전북대 전임연 구원 주용기 박사에 따르면 강정천 은 대략 500여 개체에 이르는 원앙 이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리의 원앙이 서식하는 장 소"라며 "원앙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 한다면 강정천 상수원보호구역은 천 연기념물 327호인 원앙 서식지로 문 화재 보호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경찰이 원앙 사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인에 대해 총상이 아닌 통신선에

걸려 죽은 것으로 판단한 것과 관 련해 "제2강정천교 인근에서 발견 된 원앙 사체 1구에서는 산탄총알 이 발견됐고, 다수의 원앙 날개에 서도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 됐다. 엽총 사격에 의해 집단폐사 가 이뤄졌다는 의심이 충분한 상 황"이라며 "날개 길이가 큰 두루미 와 황새들이 전깃줄에 걸려 죽는다 는 보고는 종종 있지만, 원앙과 같 은 소형조류가 전깃줄에 걸려 죽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전 문가들의 견해다. 게다가 동시에 집단폐사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하 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어떠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원앙의 죽음에 대해 철 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문화재청과 환경부는 강정 천 원앙 전수조사를 통해 상수원보 호구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전국 꽃배달 서비스 제주에는 꽃보리화원이 책임집니다 꽃보라화원 #746-0014, H·P 010-3693-5563 (제원사거리 위국민은행 신제주지점 맞은편 골목) City Flower l 동·서양난,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전국 꽃배달 서비스 꽃비구니, 꽃다발, 플리워박스, 꽃의 모든것 모든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aflower.com

오리지널의 공식대로 The Original dimchae®

딤채는 각방마다 냉각기가 하나씩!

업계 유일 4by4 룸별 독립냉각

**하나의** 딤채로 **네대의** 딤채를! -

[주]대유위니아 제주점 전시장: 제주시 북성로 27(삼도이동) T. 721-9095~6, 755-9095, F. 755-9096







